

# ‘인생/삶’의 지향적 및 존재론적 은유 양상 연구

-최근의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배도용

(부산외국어대학교)

## 《목 차》

1. 들어가기
2. ‘인생/삶’의 개념적 은유
  - 2.1. ‘인생/삶’의 지향적 은유
  - 2.2. ‘인생/삶’의 존재론적 은유
3. 나오기

### <Abstract>

**Bai, do-yong.** 2022. 06. 10. **A Study on the Orientational and Ontological Metaphors of 'Life': Focusing on Recent Internet Data.**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1, 77-96. As the foundation stud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the patterns of oriented and ontological metaphors among the conceptual metaphors of 'life' in Korean.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life-oriented metaphors included: [life up], [life's good state up, bad state down], [life's light up, out down] [life's memory up, forgetting down], and [life's unburden up, and burden down]. Second, in the ontological metaphor of life, there were objects,

machines, fragile objects, watches, bowls, and guest metaphors. Among them, it can be seen that the [life is a machine] metaphor conceptualized life experience as having conditions for improving productivity or efficiency. In addition, the metaphor showed a social atmosphere to increase mechanical productivity and efficiency through job search difficulties among young people due to the domina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capital and globalization and lifelong work. In addition, the [life is a guest] metaphor provided one aspect of why we want to move away from the complex networks of human society and live in nature or in isolated area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ceptual Metaphors, Orientational Metaphors, Ontological Metaphors, Metaphorical Aspect

## 1. 들어가기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의 토대 연구로써, 한국어에서 ‘인생/삶’의 개념적 은유 가운데 지향적 은유와 존재론적 은유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sup>1)</sup>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인생’이다. 그런 인생은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겠지만 슬프고 괴로운 날도 있다.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남긴다. 속담에도 인생살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반임을 이르는 ‘인생 백 년에 고락이 상반이라’ 했다. 게다가 사람의 한평생은 지극히 짧아 ‘인생 겨우 오십 년’이라는 관용구도 있다. 그러므로 인생은 괴로움과 즐거움이 공존하지만, 그것

---

1) 이 연구에서 ‘인생/삶’의 개념적 은유 가운데 구조적 은유를 제외하고 지향적/존재론적 은유만을 다루는 것은 구조적 은유가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여 따로 다루었음을 밝힌다(배도용 2022 참조).

마저도 지극히 짧아 허망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인다. ‘삶’도 사람이 사는 일이다. ‘사람이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인생이라면 ‘사는 일’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삶이다. 그러니 두 단어는 ‘사는 일(生)’에서 유의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인생과 삶을 함께 다뤄야 하는 이유이다.<sup>2)</sup>

그러나 앞서 살폈던 속담이나 관용구는 인생이나 삶에 대한 우리 사고의 매우 한정된 일부만을 보여줄 뿐이다. 이에 비해 ‘인생/삶’에 대한 일상적 개념 체계를 보여준 앞선 연구로 김기수(1997), 정희자(1999), 이지현(2002), 한 정(2015), 최영주(2019) 등의 연구가 있다. 먼저, 김기수(1997)에서는 개념적 은유 [인생은 연극], [일생은 하루], [인간은 식물]로 인생/삶을 개념화하고 있다. 정희자(1999)에서는 구조적 은유 [인생은 전쟁이다], [인생은 연극이다], [인생은 여행이다], [인간은 식물이다]로, 지향적 은유 [건강/삶은 위: 아픔/죽음은 아래]로 인생/삶을 개념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지현(2002)에서는 삶에 관한 개념적 은유 [인생은 여행이다], [인생은 강물이다], [인간은 식물이다], [생명은 불꽃이다], [일생은 하루이다], [일생은 일년이다], [인생은 연극이다], [인생은 집이다]로, 한정(2015)에서는 구조적 은유 [인생은 여행], [인생은 연극], [인생은 전쟁], [인생은 꿈], [인생은 도박], [인생은 음악/노래]로, 지향적 은유 [인생의 제일 좋은 상태: 위, 인생의 제일 나쁜 상태: 아래]로, 그리고 존재론적 은유 [생명은 물건/귀중품], [삶은 그릇], [인생은 책], [생명은 끈], [인생은 음식], [인생은 식물]로 인생/삶을 개념화하고 있다. 최영주(2019)에서는 [삶은 야구]로 인생/삶을 개념화하고 있다.

앞선 연구를 살펴보면, 인생/삶의 구조적 은유는 대부분의 연구

---

2) 실제로 이지현(2002), 한정(2015), 최영주(2019) 등의 앞선 연구에서도 ‘인생’과 ‘삶’을 묶어 다루고 있다. 또한 그것은 ‘삶’과 관련된 최근의 인터넷 자료가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따랐기 때문이다.

에서 다루었지만 지향적 은유(정희자 1999, 한징 2015)와 존재론적 은유(한징 2015)를 다룬 것은 두 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육의 토대 연구로써 이 연구에서는, 인생/삶의 지향적 은유와 존재론적 은유를 통해 한국어에서 이들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2장에서 인생/삶의 지향적 은유와 존재론적 은유를 다루고 3장에서 본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 2. ‘인생/삶’의 개념적 은유

이 장에서는 인생/삶의 개념적 은유 가운데 지향적 은유와 존재론적 은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sup>3)</sup>

### 2.1. ‘인생/삶’의 지향적 은유

#### 2.1.1. [인생/삶은 위]

개념적 은유 [인생/삶은 위]는 [죽음은 아래]<sup>4)</sup>와의 상호 관련

---

3) 배도용(2022)에서는 인생/삶의 개념적 은유 중 구조적 은유 양상을 다루었는데 그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인생/삶의 본질에 관한 은유

가. [인생/삶은 꿈], [인생/삶은 이야기]

나. [인생/삶은 사계절], [인생/삶은 온도], [인생/삶은 농사], [인생/삶은 건축], [인생/삶은 맛], [인생/삶은 하루]

다. [인생/삶은 배움], [인생/삶은 9품사], [인생/삶은 문장], [인생/삶은 그림], [인생/삶은 음악], [인생/삶은 연극]

라. [인생/삶은 여행], [인생/삶은 항해]

(2) 인생/삶의 본질에서 벗어난 은유

가. [인생/삶은 상거래], [인생/삶은 경영]

나. [인생/삶은 전쟁], [인생/삶은 스포츠]

다. [인생/삶은 도박], [인생/삶은 게임], [인생/삶은 키보드]

4) 누워있도록 강요하는 혹은 아래쪽에 있는 것은 아픔과 죽음의 물리적

속에서 전체 체계를 조직화하고 있다. ‘위-아래’ 라는 공간적 지향성은 우리가 현재와 같은 몸을 가졌고, 그 몸이 우리의 물리적 환경에서 현재와 같이 활동한다는 사실로부터 생겨난 것이다.(노양진·나익주 옮김 2006: 37)

- (1) 가. 힘든 시간을 보내던 그는 태권도를 벗 삼아 다시 일어섰다 (한겨레, 2021.09.05.).
  - 나. 고통을 모르는 그는 다시 태어났다(유튜브, 멍기TV, 2021.03.16.).
  - 다. 당진소방서, ‘두근두근’ 심장이 다시 뛰다(당진신문, 2021.11.23.).
  - 라. 환자는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다(한양대학교 구리병원, 2017.09.01.).
  - 마.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자가호흡 돌아왔다"(세계일보, 2014.05.11.).
  - 바. 병원 도착 당시 심장마비를 일으켜 ... 현재는 심장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한국경제신문, 2014.05.11.).
  - 사. 자가분만 후 호흡 멎은 신생아 구급대원들이 살렸다(연합뉴스, 2020.06.30.).
  - 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4분쯤 지났을 때 아버지의 호흡이 돌아왔다(국민일보, 2020.05.07.).
  - 자.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던 중 환자의 자발호흡과 맥박이 돌아왔다(충남인터넷뉴스, 2022.04.08.).
  - 차. 150밀리리터를 더 주사하자 호흡이 규칙적으로 변했고 곧 이 어 의식이 돌아왔다(서울아산병원, 메디컬칼럼, 이재담).
  - 카. '얼어 죽은' 남자, 기적처럼 살아났다...(동아일보, 2016.01.22.)
  - 파. 30일 후, 저스틴의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다(동아일보,

---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죽음은 아래] 은유의 일부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배도용 2021: 197-198)

- 가. 홍범도 장군이 오늘 마침내 고국산천에 몸을 누이신다(연합뉴스, 2021.08.18.).
- 나. 여동생 10주기 다음날 쓰러져...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서울신문, 2019.05.19.).

2016.01.22.).

위 (1)의 은유 표현에서 ‘다시 일어서거나 심장이 다시 뛰거나 다시 살아나거나 혹은 다시 태어남’은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나 누워있던 아픈 심장이나 신체가 움직이거나 바로 선 자세 곧 ‘위’로의 공간적 지향성을 나타내며 이런 지향성은 우리의 물리적·문화적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호흡이나 심장 상태, 그리고 맥박이 돌아오는 것’역시도 물리적·문화적 경험에 비취볼 때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의,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오거나 다시 활동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위’로의 공간적 지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2.1.2. [인생/삶의 좋은 상태는 위, 나쁜 상태는 아래]

이 은유에서 ‘인생/삶의 좋은 상태는 위’는 물리적으로 몸이 바로 선 자세여서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동반하고, ‘인생/삶의 나쁜 상태는 아래’는 물리적으로 신체가 수그러진 또는 그런 자세를 강요하는 자세여서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동반한다고 볼 수 있다.

- (2) 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경향신문, 2022/03.03)
  - 나. 파킨슨병...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한 삶 유지 가능(한국일보, 2022.03.12.)
  - 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불교신문, 2009.04.22.).
  - 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황금기라고 말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하이닥, 2021.09.29.).
  - 마.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첫 딸을 얻은 기쁨을 밝힌 ... (한국경제, 2020.09.04.)
  - 바. 오늘도 우크라이나 부모들은 말한다 "인생은 아름다워"(매일경제, 2022.03.05.)
  - 사. 2016년 유럽에서 단기간 생활했을 때가 내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들이었다(브런치, 방랑여행객, 2018.07.22.).
  - 아. 작은 항구를 둘러싼 인생 밑바닥 사람들의 ... (오마이뉴스,

2022.03.16.)

- 자. 삶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매일경제, 2022.02.19.)
- 차. 인생의 나락까지 갔던 남자, 최악의 순간 한 선택의 결과(조선일보, 2021.11.18.)
- 카. 열심히 살았는데 시궁창 인생, 그녀 삶은 왜 이럴까(오마이뉴스, 2022.02.16.)
- 타. 국민의힘 선대본부 인사, 광주시민 향해 “거렁뱅이 인생” 발언 논란 … 결국 해촉(경향신문, 2022.03.07.)
- 파. 좌절한 인생에 전하는 '동양판 탈무드'(이데일리, 2022.03.01.)
- 하. 케네디는 …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BBC뉴스코리아, 2018.06.10.).

위 (2가)-(2사)의 은유 표현에서 ‘건강, 절정, 황금기, 최고, 아름답다, 찬란하다’와 같은 어휘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동반하므로 물리적으로 위로 우뚝 선 자세이다. 반면에 (2아)~(2하)의 은유 표현에서 ‘(밑)바닥, 나락, 시궁창, 거렁뱅이, 좌절하다, 힘겹다’와 같은 어휘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동반하므로 물리적으로 밑으로 수그러진 또는 그렇게 강요된 자세이다.<sup>5)</sup> 그러므로 [인생/삶의 좋은 상태는 위이고, 나쁜 상태]는 아래라는 지향성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 2.1.3. [인생/삶의 불 켜짐은 위, 꺼짐은 아래]

불은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여 높은 온도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물체이다. 그런 타는 불에서 일어나는 붉은빛을 띤 기운이 불꽃이다. 불꽃이 유지되는 한, 혹은 불이 타는 한 삶은 유지되지만, 불이 꺼지거나 불꽃이 사라져 재가 되면 삶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

5) 이는 [행복은 위, 슬픔은 아래]와 [건강과 삶은 위, 아픔과 죽음은 아래] 은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3) 가. “63년 불꽃같은 인생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 눈물의 작별인사(법률신문, 2022.01.17.)  
 나. 고 이태석 신부의 ‘불꽃’ 인생(광주드림, 2011.02.09.)  
 다. 오늘도 인생의 파란불이 꺼지길 바라는 하루입니다(페이스북, TOP5편집학원).  
 라. 인생의 불을 꺼던 순간, 우린(유튜브, 직키, 2020.07.05.)  
 마. 이처럼 우리 일생도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잔잔한 여운을 주는 잿더미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티스토리, 001bono, 2017.11.26.).

위 (3)의 은유 표현에서 불이나 불꽃이 가장 활발하게 타거나 붉은 빛을 가장 크게 유지하는 동안의 인생/삶은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때이다. 그러나 불꽃이 사그라지거나 꺼지면 삶도 스러지는 죽음을 맞는다. 그것은 우리의 물리적 근거로 보았을 때, 상승 작용으로 위로 향하나 반면에 그 화려한 불이 꺼지거나 불꽃이 사라져 재가 되면 위에서 아래로 향하기 때문이다.<sup>6)</sup>

#### 2.1.4. [인생/삶의 기억은 위, 망각은 아래]

기억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내는 상태라고 한다면, 망각은 그렇지 못한 상태이다.

- (4) 가. 기억과 망각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교착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뜻도 된다.(홍주일보, 2018.07.26.)  
 나. 인생은 삶의 기억이다(이코노미스트, 2014.04.22.)  
 다. 인생, 연약한 인간의 쓸쓸하지만 대견한 삶의 기억(이코노미조선, 2021.11.29.)  
 라. 기억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이나 슬픔이 삶의 의미가 된다.(홍주일보, 2018.07.26.)  
 마. 우리들의 인생은 망각 속의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중앙선데이, 2016.01.03.)

6) 죽음의 은유적 지향성에도 [죽음은 불 꺼짐/이동] 은유가 존재한다(배도용 2021:198).

- 바. 그에게 삶은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망각의 연속이다. (경향신문, 2014.01.24.)
- 사. 잊혀진 인생은 자신을 보지 않고 삽니다.(브런치, 모르세, 2011.04.08.)
- 아. 살아있어도 누군가엔 잊혀진 하찮은 인생들의 쓸쓸한 독백 (세계일보, 2015.04.03.)
- 자. 슬프게도 그는 ‘원 히트 원더’ 로 잊혀졌다.(한겨레, 2002.10.16)
- 차. 최연소 유럽진출 출신, ‘잊혀진 신동’ 조원광의 축구인생(축나잇, 2021.07.09.)
- 카. 막 내린 안희정 30년 정치인생…정치권에선 이미 잊혀진 존재(국민일보, 2019.09.09.)
- 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음에도 … 친구는 금방 잊혔다. (포항공대신문, 2020.07.06.)
- 파. 한정현은 문화사적 접근법으로 소수자의 잊힌 삶을 복원하는데 능한 작가다.(한겨레, 2022.02.25.)

이 (4)의 은유 표현은 뚜렷하게 방향성을 나타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식은 위, 무의식은 아래] 은유 표현의 범주에서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깨어 있을 때는 기억이 활발한 의식 상태이고 누워 잠자고 있을 때는 무의식의 상태로 기억이 둔해지거나 멈추거나 심지어는 잊힌다. 이는 인간과 대부분의 다른 포유동물이 누워서 잠자고, 깨어 있을 때는 서 있다고 하는 물리적 근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노양진·나익주 옮김 2006: 40). 그러므로 기억이 삶이나 삶의 의미를 가리키기에 ‘위’ 로의 방향성을 지닌다면, 망각은 기억에서 벗어난 또는 심지어 잊힌 상태를 가리키므로 ‘아래’ 로의 방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2.1.5. [인생/삶의 짐 내려놓기는 위, 짐 지기는 아래]

일반적으로 [행복은 위, 슬픔은 아래], [건강과 삶은 위, 아픔과 죽음은 아래], [많음은 위, 적음은 아래]처럼 긍정적이고 개체가 쌓이는 요소는 위로 향하고 부정적이고 덜어지는 요소는 아래로

향한다. 그러나 [인생/삶의 짐 내려놓기는 위, 짐 지기는 아래] 은유는 이들과는 다르다. 다음의 은유 표현을 살펴보자.

- (5) 가. 인생의 무거운 짐, 내려놓을 곳이 있습니다!(아름다운동행, 2020.02.01.)
- 나. 최씨는 “오늘 선고에서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매일경제, 2016.10.28.).
- 다. 공직자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다(광양시민신문, 2016.06.07.)
- 라. 행자들이 삭발식을 갖는 날이면 ... 속세에서부터 지고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있다(법보신문, 2009.04.14.).
- 마.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삶에 주어진 짐들이 있습니다(크리스찬저널, 2008.07.17.).
- 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배우라(순복음가족신문, 2006.03.26.).
- 사.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남양주뉴스, 2013.08.27.)
- 아.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복음기도신문, 2017.07.11.).
- 자. 많은 문제들을 등짐처럼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주간포커스, 2016.07.07.).
- 차. 여섯 명의 청년들은 오늘도 묵묵히 인생을 짊어지고 오제길을 걷는다(경향신문, 2016.07.11.).
- 파. 그는 작은 체구로 곱절 무게의 인생이란 짐을 묵묵하게 짊어져온 '작은 거인'이다(파이낸셜뉴스, 2022.03.13.).

위 (5)의 은유 표현들은 [인생/삶의 짐 내려놓기는 위, 짐 지기는 아래]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 은유는 다른 지향적 은유와는 달리, (5가)~(5라)에서처럼, 인생/삶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무나 직무, 공직 등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므로 ‘위’ 로의 지향성을 가진다. 반면에 (5마)~(5파)처럼 인생/삶의 짐을 지는 것은 자신에게 의무나 임무, 책무, 공직 등의 부여로 인한 속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아래’ 로의 지향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물리적 경험에 비춰봐도 짐을 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하중을 받게 하므로 등을 강제로 굽히게 하고, 이를 내려놓는 것은

굽힌 등을 바로 세우게 하는 것이므로 지향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sup>7)</sup>

## 2.2. ‘인생/삶’의 존재론적 은유

### 2.2.1. [인생/삶은 개체]

다음의 은유 표현들은 인생/삶의 경험을 어떻게 대상이나 물질로 식별했는지를 살펴보자.

- (6) 가. 열심히 살수록 인생이 망가지는 남자(중앙일보, 2016.07.23.)
- 나. 연주자들에게겐 더 많은 인생 경험이 필요합니다(유튜브, 재즈에비뉴, 2021.07.28.).
- 다. … 내가 가장 안타까운 유형이 자신의 인생과 싸우는 유형이다(터놓고 연극영화, 2013.06.15.).
- 라. 나와 타인을 그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 속으로 몰아넣는다면…(정신의학신문, 2020.10.03.)
- 마. 르누아르는 인생이 우울하기 때문에 그림만큼이라도 밝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도원의 아침편지, 2018.07.25.).
- 바. 인생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브런치, 슬기로운 뉴욕의사, 2022.03.21.)
- 사. “인생이 지겹다”는 아홉 살 딸에게 뭐라고 말할까요(중앙일보, 2015.12.15.)
- 아.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에 ‘인생이 싫고, …’ (전북일보, 2000.05.18.)

이 (6)의 은유 표현들은 [인생/삶은 개체] 은유로 개념화할 수 있다. 곧 이는 ‘인생/삶’을 하나의 개체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삶을 (6가)처럼 지시하고, (6나)처럼 양화하며, (6다)~(6라)처럼 인생/삶과 싸우거나 몰아넣는 인생의 특별한 양상을 식별하기

---

7) 이를 문화적 정합성(coherence)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문화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에 는 어려워 이렇게 처리했음을 밝힌다.

도 한다. 또한 (6마)처럼 인생/삶을 하나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6바)처럼 인생/삶과 관련해서 행동하고, (6사)~(6아)처럼 인생/삶이 지겹거나 싫은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 2.2.2. [인생/삶은 기계], [인생/삶은 부서지기 쉬운 물건]

비물리적인 인생을 개체나 물질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인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에 그것이 우리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정교화되는지를 [인생/삶은 기계]와 [인생/삶은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라는 존재론적 은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7) 가.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마이클 하얏트 저/박미경 역, 안드로메디안, 2019.12.11.)
  - 나. 우리가 늙을 때까지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립해 주신 분(블로그, b3728g0976w, 2005.09.05.)
  - 다. 버려진 자전거로 인생을 수리한다(내 손안에 서울, 2010.12.20.).
  - 라. 이제라도 삶을 고쳐 쓸 수 있다면(예스티비, 2020.09.18.)
  - 마. 인생은 어떻게 작동되는가(프레데릭 M. 허드슨 저/김경숙 역, 사이, 2017.06.25.)
  - 바. 일이 없으면 녹슨 인생이나 마찬가지다(국민일보, 2021.02.02.).
  - 사. 내 인생에 기름을 부어준 시간 by 윈스님(블로그, 재능세공사, 2010.01.28.)
  - 아. 인생은 힘들다. ... 할 일이 너무 많다면 아래의 생산성 팁을 사용해 보라(허프포스트코리아, 2016.10.21.).
  -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생산적인 일에 집착하지만 생산성은 인생의 뒷이다(뉴시스, 2022.02.14.).
  - 차. 삶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티스토리, 인생최적화, 2020.06.06.)
  - 카. 인생의 효율을 논하다. 나는 고효율의 기계가 아니잖아요(woo, 2020.11.21.).

위 (7)에서처럼 [인생/삶은 기계] 은유는 우리에게 인생/삶을

만들고 조립하고 수리하며 고쳐 쓸 수 있게 하거나 작동이 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아 녹슬어 기름을 부어야 하는지 그리고 생산성이나 효율성 수준 제고의 조건을 지닌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에 다음의 (8)에서처럼 [인생/삶은 부서지기 쉬운 물건] 은유는 위 (7)의 [인생/삶은 기계] 은유와는 서로 상이한 모형을 제공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8) 가. 우리의 멋진 인생이 쉽게 부서지는 모험이라는 걸 매일 잠깐이라도 생각해줘요(byhali aquoa, 정재영).
- 나. 예배로 가정을 디자인 하라! - 깨진 인생도 사용하신다(CTS 기독교방송, 2020.06.02.)
- 다. 산산조각난 내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 하나 주워 모으셔서, …(살레시오협력자회, 2020.12.04.)
- 라. 전 MBC 사장님, 제 인생 망가뜨린 거 기억하십니까?(오마이뉴스, 2022.02.15.)
- 마. 삶이 파괴됐다, 그러나 살아남겠다(서울신문, 2022.03.02.)
- 바. ‘독박 돌봄’으로 삶이 무너지는 젊은이들 … 그들의 곁을 지켜줄 ‘제도’가 필요하다(경향신문, 2022.02.25.).
- 사. 인생이 훅 꺼이는 건 언제부터인가(서울경제, 2021.05.26.).

위 (8)의 [인생/삶은 부서지기 쉬운 물건] 은유는 단단한 [인생/삶은 기계] 은유와는 결이 다르다. 그것은 전자가 후자에 비해 다만 우리에게 심리적 강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준다. (노양진·나익주 옮김, 2006: 64) 그래서 이 은유는 (8)에서처럼, 인생을 부서지고 깨져서 조각나거나 망가뜨려서 파괴된 혹은 무너지거나 꺼이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게 해준다.<sup>8)</sup>

---

8) [인생/삶은 기계] 은유와 [인생/삶은 부서지기 쉬운 물건] 은유도 일정 부분 ‘위, 아래’의 방향성을 보이지만, 그것은 개념적이기 때문에 지향적 은유로 나누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

### 2.2.3. [인생/삶은 시계]

이 은유는 인생/삶의 경험을 시계(時計)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는 앞서 (7)의 [인생/삶은 기계] 은유와 맞닿아 있다. 왜냐하면 기계 은유는 기계적 조립이나 조작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데 그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는 결국 효율적 시간 관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9) 가. 당신의 인생시계는 지금 몇 시입니까?(대한전문건설신문, 2011.09.23.)
- 나. 80세 인생시계에서 20세는 새벽 6시, 40세는 정오인 12시, 60세는 오후 6시 그리고 80세는 하루가 마감되는 자정인 밤 12시가 됩니다. 그에 비해 삶의 여정을 100세 인생시계에 담 아보면 20세는 새벽 4시 48분, 40세는 오전 9시 36분, 60세는 오후 2시 24분입니다. 그리고 80세는 ... 오후 7시 12분이 됩니다.(자유칼럼그룹, 2021.06.29.)
- 다. 그중 한국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인 강영우 박사의 삶의 인생 시계는 이렇습니다. 새벽 4시, 압축 갑턴 10대, 오전 9시, 열정의 30대, 오후 1시, 찬란한 50대, 저녁 7시, 아름다운 60대, 68세 책장암으로 사망(따뜻한 하루, 2021.04.05.)
- 라. 스물한 살, 내 인생의 아침 6시입니다(블로그, 아름재단, 2014.10.13.)
- 마. 한국인의 평균연령이 80세쯤 된다 치면, 80세 중 24세는 24 시간 중 몇 시? 아침 7시 12분.(김난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쌤앤파커스, 2010.12.24.)
- 바. 20대는 인생의 아침, 하루 다 간 듯 좌절하지 마라(머니투데이, 2011.09.29.)
- 사. 인생의 시계가 다섯 시를 앞두고 있는 남자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 한 여인의 배우자로,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의 사무관 이자 동료로, 지금껏 바쁘게 달려만 왔다(서태욱, 초록비책 공방, 2014.04.05.).
- 아. 내 인생시계는 오후 1시43분 2초. 당신은 몇 시인가?(공생공사, 2020.08.07.)

기계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높이기 위한 전제 조건은

시간 관리이다. 시간의 효율적 관리는 표준화, 계획화, 통제화를 통해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sup>9)</sup> 위 (9)에서처럼 인생/삶을 시계로 인식함으로써 [인생/삶은 시계] 은유로 개념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최근 100세 장수 시대와 맞물려 국제적 금융자본의 지배와 세계화에 따른 청년층의 구직난과 평생 근로를 통해 기계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사회적 분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 2.2.4. [인생/삶은 그릇]

이 은유에서 인생/삶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간주되는 사건이어서 공간 속에 존재하고 그 경계를 갖는다. 그 경우 인생/삶은 그릇인 물건으로 보고 그 속에 대상인 참여자를 담는 것이다.

- (10) 가. 평범한 인생, 한 번은 채워지고 싶다!(Jtbc, 2022.03.03.)  
 나. ... 즐겁게 살아가는 삶으로 인생을 채워나가고 싶다(포항공대신문, 2019.11.08.).  
 다. 내 인생에 남자 셋이 들어왔다(콕TV, 2021.01.24.).  
 라. 소녀시대 출신 배우 서현이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맙다"라며 ... (HUFFPOST, 2022.02.20.)  
 마. '나는 비혼주의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틀에 나를 가두지 마.'(오마이뉴스, 2018.02.07.)  
 바. 인생이 이유 없이 우울하고 공허해요(정신의학신문, 2021.07.26.).  
 사. 기운 빼앗는 사람, 내 인생에서 빼버리세요(스테판 클레르

- 
- 9) 시간 관리(time management)는 계획적으로 시간을 배분하여 관리하는 것인데, 이는 과학적 관리법으로 알려진 테일러(F. W. Taylor)가 19세기 말부터 발표한 기법으로 표준화, 계획화, 통제화한다는 원리에 근거해서 생산활동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https://ko.wikipedia.org>).
- 10) 배도용(2022)에서는 인생의 본질에서 벗어난 [인생/삶은 상거래]와 [인생/삶은 경영] 은유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앞의 각주 3) 참조).

제 저/이주영 역, 위즈덤하우스, 2019.04.25.).

아. 모두가 불행이라는 인생의 터널을 지나간다(크리스천투데이, 2019.10.07.).

위 (10)의 [인생/삶은 그릇] 은유에서 인생/삶인 그릇 속에 참여자를 채우거나 혹은 참여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참여자를 가두거나 또는 비우거나 빼버린다. 아니면 지나가게 내버려 두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삶을 경계 짓는 표면과 안-밖 지향성을 지닌 하나의 그릇으로 개념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은유이다.

### 2.2.5. [인생/삶은 손님]

존재론적 은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리적 대상을 사람으로 구체화하는 은유인 의인화일 것이다. 이는 개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인간의 동기화나 활동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해준다.(노양진·나익주 옮김, 2006: 72) 다음의 예 (11)은 이런 의인화를 잘 보여준다.

- (11) 가. 인생이 묻고, 톨스토이가 답하다(이희인, 홍익, 2019.02.20.)
- 나. 삶이 내게 말한다(백송 철학원, 2021.02.02.)
- 다. 삶이 나를 부를 때(김연정, 제인컴퍼니, 2021.07.05.)
- 라.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티스토리, 한형빈, 2014.03.22.)
- 마. 인생이 내게 준 선물(유진 오케리 저/박상은 역, 꽃삽, 2006.09.29.)
- 바.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동아일보, 정호승의 새벽편지, 2012.07.12.)
- 사. 인생이 나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것들(장성오, 위닝박스, 2016.08.05.)
- 아. 삶이 초대할 때는 응답할게요(열심히 사는 물고기, 2022.01.30.)
- 자. 삶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김선영, 정신세계사, 2021.11.24.)
- 차. 삶이 나를 놀려먹는데 나라고 삶을 놀리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한국일보, 2006.10.24.)
- 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알렉산드르 세르게비치 푸시킨 저/

오정석 역, 더클래식, 2018.08.31.)

타. 내가 삶을 외면하니 삶도 나를 외면하는 것이다(목탁소리, 2022.03.05.).

파. 삶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넷플릭스, 2022.01.13.)

위 (11)의 은유 표현에서 인생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인간 활동의 관점 곧 [인생/삶은 손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해준다.<sup>11)</sup> 이것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 사고하고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제공하는데, 인생이 우리에게 묻고 말하고 부르고 말을 걸어오고 혹은 주거나 사주기도 하는 손님으로 간주한다. 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초대하고 어디론가 데려가기도 하다가 한편으로는 우리를 놀려먹거나 속이거나 외면하면서 심지어 갈라놓기까지 하는 손님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인생/삶은 손님] 은유는 우리 쪽에서 손님에 대한 답변이나 응대, 보답, 배움, 유혹이나 회롱, 사기 그리고 이별에 대한 대비를 취하게 하고 또한 그것이 정당화하게 해준다.

이것은 추상적인 인생/삶을 이해하기 어려워해 곤란에 빠졌을 때, [인생/삶은 손님] 은유는 왜 우리가 적어도 이런 인생의 일방적 물음, 귀찮은 부름이나 간섭, 그리고 어이없는 놀림이나 속임, 외면이나 이별을 당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더불어 이것은 우리(특히 중년들)가 왜 인간 사회의 복잡한 관계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이나 고립된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지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와 같은 TV 프로그램<sup>12)</sup>을 즐겨 시청하는지를 이해하는 한 근거

---

11) ‘손님’은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이기도 하고 영업점에 찾아온 사람이기도 하며 지나가다가 잠시 들른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귀찮거나 예측이 어려운 존재이기도 하다. 속담에 ‘손은 갈수록 좋고 비는 올수록 좋다’고 했다. 비가 많이 오면 농사에 좋으나 찾아온 손님은 빨리 돌아가 주는 것이 고맙다는 말처럼 우리 문화에 손님은 이윤배반적 존재이다. 죽음에서도 [인생/삶은 손님] 은유와 마찬가지로 [죽음은 손님] 은유가 존재한다(배도용 2021:201).

12) ‘나는 자연인이다’는 MBN에서 방송 중인 교양 프로그램으로, “당신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3. 나오기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의 토대 연구로써, 한국어에서 ‘인생/삶’의 개념적 은유 가운데 지향적 은유와 존재론적 은유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국내 은유 연구의 연구 성과가 이미 상당량 축적되었지만, 인생/삶에 대한 연구, 특히 지향적 은유와 존재론적 은유 연구는 드문 편이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구글(Google)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최근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인생/삶 은유 표현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인생/삶’의 개념적 은유 가운데 지향적 은유에는 [인생/삶은 위], [인생/삶의 좋은 상태는 위, 나쁜 상태는 아래], [인생/삶의 불 켜짐은 위, 꺼짐은 아래], [인생/삶의 기억은 위, 망각은 아래], [인생/삶의 짐 내려놓기는 위, 짐 지기는 아래] 은유가 있었다. 이 가운데 [인생/삶의 짐 내려놓기는 위, 짐 지기는 아래] 은유는 다른 지향적 은유와는 달리 인생/삶의 짐을 내려놓는 의무나 임무, 책무 등으로부터의 해방이 ‘위’로의 지향성을, 반면에 인생/삶의 짐을 지는 그래서 의무나 임무, 책무 등의 부여가 ‘아래’로의 지향성을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인생/삶’의 개념적 은유 가운데 존재론적 은유에는 [인생/삶은 개체], [인생/삶은 기계], [인생/삶은 부서지기 쉬운 물건], [인생/삶은 시계], [인생/삶은 그릇], [인생/삶은 손님] 은유가 있었다. 이 가운데 [인생/삶은 개체] 은유는 인생/삶의 경험

---

은 지금 행복한가? 돈 한 푼 없어도,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여유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자연인 … ” 라고 소개되어 있다(<https://m.mbn.co.kr/tv/592>).

을 대상이나 물질로, [인생/삶은 기계] 은유는 인생/삶의 경험을 생산성이나 효율성 수준 제고의 조건을 지닌 것으로 개념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인생/삶은 부서지기 쉬운 물건]은 [인생/삶은 기계] 은유와 대조적으로 인생/삶을 품질 향상의 생산성 제고로 개념화되기보다는 깨지기 쉬운 물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인생/삶은 시계] 은유는 최근 100세 장수 시대와 맞물려 국제 금융자본의 지배와 세계화에 따른 청년층의 구직난과 평생근로를 통해 기계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사회적 분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게다가 [인생/삶은 손님] 은유는 왜 우리가 인생의 일방적 물음, 귀찮은 부름이나 간섭, 그리고 어이없는 놀림이나 속임, 외면이나 이별을 당하는지를 통해 우리가 왜 인간 사회의 복잡한 관계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이나 고립된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지 그 한 단면을 제시해주었다.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의 토대 연구로써 ‘인생/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통해 한국어교육에서 은유 기반 학습자 연구의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은유를 통해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단순한 인터넷 자료만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자료의 활용을 통한 다채로운 은유 표현을 구축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기수(1997). 삶과 죽음에 관한 한국어 은유 표현의 인지적 연구, <언어> 22권 3호, 한국어언어학회. 391쪽~412쪽.  
 배도용(2021). ‘죽음’의 은유적 개념화 양상-최근의 인터넷 자료

- 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67집, 우리말학회. 177쪽~204쪽.
- 배도용(2022). ‘인생/삶’의 구조적 은유 양상-최근의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화교육> 16권 1호, 한국어문화교육학회.
- 이지현(2002). ‘삶과 죽음’에 관한 은유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자(1999). 삶으로서의 은유, <외대논총> 19권 3호, 219쪽~247쪽.
- 최영주(2019). 은유적 함의의 부분성: [삶은 야구] 은유를 중심으로, <현대문법연구> 103호, 현대문법학회. 107쪽~130쪽.
- 한 정(2015).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나타나는 ‘삶’과 ‘죽음’에 관한 은유 표현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akoff, G. & Johnson, M.(1980/2003),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노양진·나익주 옮김, 2006,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

<웹사이트>

[https://ko.wikipedia.org/wiki/%EC%8B%9C%EA%B0%84\\_%EA%B4%80%EB%A6%AC](https://ko.wikipedia.org/wiki/%EC%8B%9C%EA%B0%84_%EA%B4%80%EB%A6%AC)

<https://m.mbn.co.kr/tv/592>

## 필자 소개

성 명 : 배도용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시아대학 한국어교육학과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우편번호]46234

전자우편 : dyb@bufs.ac.kr

투고일: 2022. 6. 10 / 심사일: 2022. 6. 30 / 심사완료일: 2022. 7. 4